



## (주)삼 양 사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연지동 263  
전 화 : 740-7114

대표이사 김상응 부회장



전주공장 전경

### 1. 회사현황

으로 성장해왔다.

1924년 10월 1일 創業한 三養社는 설립초기 대규모 간척사업과 농장경영을 통해 국토확장을 도모하는 한편, 면방직 사업에 참여하여 산업근대화의 초석을 다졌으며, 해방과 6.25를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근대산업에 진출했다.

### 2. 사업 부문별 현황

#### 2.1 섬유부문

1955년 제당사업에 참여한 이래 삼양사는 화섬, 식품, 사료, 화성 등 각 분야에 걸쳐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갔다.

1969년 일산 12톤으로 시작한 폴리에스테일 Staple Fiber는 시장다변화 및 확대에 발 맞추어 신제품개발과 증설을 거듭, 최신 연속중합 직접 방사시설을 갖추는 등 1993년 현재 일산 530톤의 국내 최대 생산 규모로 성장하였다.

특히 1969년 진주에 건설한 폴리에스테일 공장은 증설과 시장 확대로 현재 국내 최대, 세계 10위의 생산량을 자랑하게 되었다.

0.5데니어에서 20데니어까지 생산되고 있는 제품은 용도에 따라 블라우스·셔츠·내의 등에 사용되는 면혼용, 양복·양장지 등에 사용되는 모혼용, 부직포·원구 등에

삼양사는 매출액 및 순이익은 92년 6월말 현재 각각 6,987억원, 210억원으로 화섬업계에서는 가장 건실한 기업

사용되는 제면용 및 재봉사용 등으로 구분된다. 특수품으로는 재봉사용에 고강력저신도면, 모혼용에 원액착색면 이형단면 및 항필터면이 있고 제면용에 증공복합면, 저용점면과 해도면이 있다. 또한 톱(Top) 생산설비를 갖추지 못한 모방업체를 위해 일산 10Ton 규모의 톱을 생산함은 물론 다품종 소량생산의 추세에 따라 고수축면, 난연성면, 다중공면, 흡습성면, 축열섬유, 극세섬유, 항균소취섬유 등 신제품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폴리에스테일 Filament는 1969년 일산 1톤으로 시작하여 일산 246톤 규모로 성장,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계속된 시장수요 증가에 따라 1994년 5월까지 56톤을 차별화 Line 및 Spindraw 공법으로 증설할 예정이다.

폴리에스테일 필라멘트는 크게 연신사(FDY) 및 가연사(DTY)로 구분되고 이는 블라우스, 자켓, 셔츠 등 의류소재로 쓰이는 것 외에도 인테리어 분야인 커튼, 자동차 시트의 소재등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다. 그동안 축적된 기술과 삼양그룹 중앙연구소와의 기술협력으로 차별화 제품인 Silk-Like사, 이수축습섬사 및 PBT(Poly Butylene Terephthalate)사의 개발에 이어 투습방수 및 인조스웨드(Suede) 소재인 초극세사(0.1~0.2d, P/N복합사 등) 개발에도 성공하였고, 최신평법인 Draw-Warper와 Spindraw 등 공장자동화로 대외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게 되었다. 아울러 기존 제품에 다양한 기능성을 부여한 난연사, 축열섬유, 도전사, 흡수성섬유, 특수단면사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개발에 역점을 두는 한편 한정된 의류용 소재에서 벗어나 산업자재용 소재분야에도 본격적으로 참여하여 제품의 용도 다양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고객에 대한 철저한 기술서비스와 품질보증 활동을 통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제품개발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있다.

산업자재용 섬유부문은 크게 나누어 Monofilament, 고강력사, Spunbond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전주공장에서 1989년부터 일산 2톤 규모로 생산하기 시작한 Monofilament는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직경 0.2 mm에서 1.2 mm 까지 다양한 규격으로 생산, 공급되고 있는데, Zipper와 제지공장의 Dryer Canvas가 주용도이며, 특히 내가수분해성이 요구되는 Canvas용은 삼양그룹중앙연구소에서 개발에 성공한 고부가가치제품으로서 국내외에서 그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강력사는 1990년부터 일산 10톤 규모의 설비를 갖추고 1,000데니어에서 2,000데니어까지 각종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Tarpaulin, Seat Belt, Rope, Conveyor Belt 등이 주용도이며, 특히 저수축이 요구되는 Tarpaulin용은 국내외에서 그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밖에도 Seat Belt용과 고무접착 관련제품의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고강력사 Down Stream의 개발을 위해 연사기와 정경기를 도입하였고, 후가공 연구개발을 위한 시험

설비의 확충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부직포는 세계적인 화섬업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래섬유사업 분야의 하나로서 그 중에서도 Spunbond는 성장성이 크고 화섬관련성도 가장 높은 제법중의 하나인데, 삼양사는 1993년 중에 일산 10톤 규모의 PP Spunbond 공장 신설을 계획하는 등 기존 섬유부문의 확대 발전을 통한 산업자재용 섬유의 용도 전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2.2 비섬유부문

울산의 이온교환수지공장은 일본 미쓰비시 카세이와 기술제휴로 1977년 이래 이온교환수지제품 <삼양다이아이온>을 생산해 오고 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이온교환수지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공장 자동화와 특수 용도수지의 개발 및 신제품 개발, 응용기술개발에도 정진하고 있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자체에서 축적한 고분자 화학 기술과 일본 미쓰비시 카세이의 고기능 복합화 기술을 결합 승화시킨 고기능 첨단 소재로서 전기, 전자, 자동차 등 기계부품의 대체소재로 널리 사용된다. 제품으로는 폴리에스테일분야인 TRIBIT/TRIPET, 폴리카보네이트분야인 TRI-REX, 나일론분야인 TRAMID, 폴리에틸렌 분야인 TRI-LEN, 엘라스토퍼분야인 TRIEL용의 Masterbatch 등이 있다.

고상중합칩은 국내의 어느 제품보다 강도와 투명도가 뛰어나며, 임차가 균일하고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의 우수한 PET-Bottle Maker의 호평속에 날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생산 규모는 일산 70톤으로 품질은 물론 공급에 있어서도 고객의 욕구 충족에 부응하고 있다.

폴리에스테일명은 다년간의 PET 관련제품의 제조경험과 기술로 생산된 제품으로 상압병, 내열-내압병, 내열병을 생산, 공급하고 있다.

1955년에 준공한 정제당 공장에서는 현대화된 자동설비를 통하여 우수한 품질의 삼양설탕을 생산하고 있다. 삼양설탕은 정백당, 황백당, 흑설탕과 특수당으로 생산되어 소비자에게 공급되고 있다.

맛초롱 식용유는 카놀라유와 옥수수샐러드유의 두가지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공급되고 있다.

또한 전라남도 남단에 위치한 목포수산공장과 여수공장은 냉동시설 130톤, 냉장시설 13,000톤, 건조시설 6톤, Fillet시설 10톤 규모를 갖추고 각종 수산물을 위생적으로 가공하여 국내에 공급하고 있다.

배합사료는 울산, 목포, 천안공장에서 월 70,000톤 규모로 생산되고 있다.

환경사업분야는 날로 오염되어 가고 있는 자연환경의 보존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환경오염 방지사업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폐·하수처리시설, 이온교환수지를 이용한 특수 화학정제처리 및 순수 고도처리시설, 소각처리시설, 대기오염 방지시설 등 각 분야의 설계, 구

매, 제작, 시공, 운전이 이르기까지 모든 엔지니어링 능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또한 구매자의 요구에 충족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에 정성을 다하고 있다.

### 3. 연구개발

1979년 1부 3실로 출발한 삼양 종합연구소는 그동안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신제품 개발 및 미래지향적 첨단제품을 개발하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삼양사는 또한 최근에 과학기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첨단 분야로의 연구영역을 확대하여 초일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대덕 연구단지내 그룹차원의 종합연구소를 건립하여 삼양그룹 중앙연구소, 삼양그룹 의약연구소, 삼양그룹 선일연구소 체제로 개편, 명실상부한 전문연구소 체제를 구축하였다.

연구인력은 총 100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급인력 자체 양성계획에 따라 11명의 박사를 양성하였고 2명의 연구원이 박사과정중에 있으며, 해외 유명대학 및 연구기관에 연구원이 파견되어 첨단기술 습득을 위한 기술 연구를 수행중에 있다.

그간의 연구개발 실적으로는 109건의 완료과제를 수행하여 202건의 특허를 출원, 국내·외에 72건을 등록하여 연구개발 능력을 대내·외에 과시하였다.

주요 연구개발 분야로는 의류용 섬유연구, 산업자재 연구와 플라스틱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최첨단 측정설비를 갖추고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분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의류용 섬유연구분야는 초극세화 소재, 기능소재 중심의 개발로 90년대 국내 제1의 폴리에스테르 섬유 신소재 개발기술을 보유한 이래, 화섬기술의 극한 추구를 통한 2000년대 최첨단소재 개발기술 확보를 목표로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산업자재연구는 섬유분야에서 축적된 기간기술을 산업자재분야로 용도전개하기 위해 Monofilament, 고강력사, 부직포를 중심으로 용도확대 및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플라스틱연구분야는 식품용기로 사용 가능한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제조할 수 있는 고상중합제조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용기사업 진출을 선도하였고, 폴리에스테르를 중심으로 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기초연구를 통하여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사업참여를 유도하는 등 현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계속하여 관련분야의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분석센터는 최첨단 측정설비를 갖추고 재료물성, 형태관찰, 유기분석, 무기분석, 표면분석, 환경시료분석, 생화학분석 등 각 분야별로 소비자의 요구에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부응하고 있다.

또한 그간 고분자화학, 식품화학 및 정밀화학 등의 연구개발을 통해 축적되고 배양된 기술을 바탕으로 2000년대에는 의약산업을 선도하는 원대한 계획하에 전문의약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연구개발실적으로는 식품 및 의약품의 분리정제에 이용되는 이온교환수지를 국산화하고 인공감미료인 아스파탐의 제조기술을 확립하였으며, 기존의 Glass제 진공고체혈관을 대체할 수 있는 Plastic 진공체혈관, 생체흡수성 수술용 봉합사에 적합한 생분해성 고분자를 개발하여 의료용구사업의 진출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였다. 또한 삼양그룹이 자본참여하고 있는 미국의 제약연구개발회사 TTI (Thera Tech, Inc.)의 약물전달 System을 도입하여 이를 제품화할 수 있는 연구개발 기반을 구축하였다.

향후 삼양그룹의 연구개발은 섬유분야는 물론 정밀화학, 고분자 신소재, 생명공학, 식품, 건강산업, 종합환경 보건 분야 등 첨단분야로의 연구영역을 확대하고 생산, 판매, 기획, 정보부문을 유기적으로 연계된 종합적인 연구개발 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2000년대에는 연구인력이 700여 명으로 확충된 명실상부한 국제적 수준의 지식집약형 기술의 산실로 성장, 세계속의 삼양이라는 초일류 기업으로 발돋움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4. 회사개요

1. 회사명 : 주식회사 삼양사
2. 대표이사 : 김상용 부회장
3. 설립일자 : 1924. 10. 1
4. 자본금 : 389억원(1992. 5. 28)
5. 종업원 : 3,829(남 2,967명, 여 862명)
6. 본사 : 서울 종로구 연지동 263
7. 공 장
  - 1) 전주공장(폴리에스테르)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가 339
  - 2) 울산공장(제당, 사료, 수지) : 경남 울산시 남구 매암동 360
  - 3) 목포공장(사료, 수산), 여수공장(수산)
  - 4) 대전공장(PET 병), 천안공장(사료)
8. 삼양그룹중앙연구소, 삼양그룹의약연구소 : 대전직할시 유성구 화암동 산 40
9. 주요연혁
 

1924	三水社 설립
1931	三養社로 개칭, 영광농장개설
1939	재단법인 양영회 설립
1955	울산정제당공장 준공

- 1956 주식회사 삼양사 출범
- 1963 전주방직사 인수, 삼양모방주식회사 출범
- 1964 삼양수산 여수공장 준공
- 1968 기업공개
- 1969 폴리에스텔 전주공장 준공
- 1974 폴리에스텔 중합공법을 국내 최초로 DMT공법에  
서 TPA공법으로 전환
- 1976 배합사료부문 진출, 이온교환수지 KI-Plant 준공
- 1977 삼양모방 흡수, 전주 제2공장으로 개칭
- 1979 삼양종합연구소 발족
- 1982 중공복합섬유 개발
- 1984 삼양종합연구소의 국내 최초 개발품 PBT섬유 생  
산, 시판
- 1985 울산사료공장 준공
- 1989 화학본부 발족,  
고강력사 생산 개시
- 1990 피키스탄 현지 법인 공동 설립
- 1992 디완살만 파이버 공장 준공,  
건강의류소재 "박스트공-P" 원사개발,  
해외사업본부 발족,  
삼양그림중앙연구소로 명칭변경,  
삼양그림의약연구소 발족